

2025년 11월 27일 공보 2025-11-23호

#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25년 11월 27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김병국, 차장 김태섭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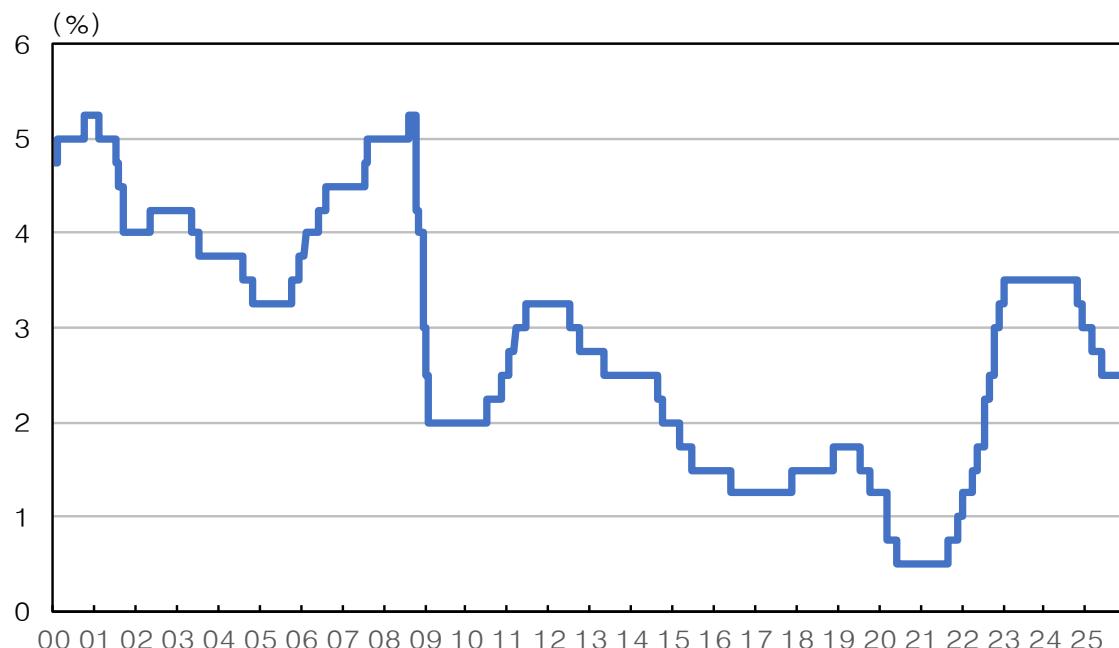
(붙임)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 [ 정책 결정 ]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sup>1)</sup> 추이



주: 1)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 목표

## [ 대외경제 여건 ]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미·중 무역갈등 완화,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그 속도는 완만할 전망이며,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지표

		2023	2024	24.4/4	25.1/4	2/4	3/4	25.8월	9월	10월
미국	GDP성장률 <sup>1)</sup> (전기비연율, %)	2.9	2.8	1.9	-0.6	3.8	..	-	-	-
	소매판매 <sup>1)</sup> (전기비, %)	3.4	3.0	1.8	0.4	0.7	1.5	0.6	0.2	..
	산업생산 <sup>1)</sup> (전기비, %)	0.2	-0.3	-0.3	1.0	0.4	..	0.1	..	..
	ISM제조업 <sup>2)</sup> (기준=50)	47.1	48.2	48.2	50.1	48.7	48.6	48.7	49.1	48.7
	실업률 <sup>1)</sup> (%)	3.6	4.0	4.1	4.1	4.2	4.3	4.3	4.4	..
	비농기취업자수증감 <sup>1)</sup> (전기비, 만명)	334.8	209.1	50.9	52.1	28.0	10.7	-0.4	11.9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1	2.9	2.7	2.7	2.4	2.9	2.9	3.0	..
유로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8	3.4	3.3	3.1	2.8	3.1	3.1	3.0	..
	GDP성장률 <sup>1)</sup> (전기비연율, %)	0.4	0.9	1.7	2.3	0.5	0.9	-	-	-
	소매판매 <sup>1)</sup> (전기비, %)	-1.9	1.3	0.5	0.2	0.8	0.2	-0.1	-0.1	..
	산업생산 <sup>1)</sup> (전기비, %)	-1.7	-3.0	-0.2	2.0	-0.3	-0.1	-1.1	0.2	..
	제조업PMI <sup>2)</sup> (기준=50)	45.0	45.9	45.4	47.6	49.3	50.1	50.7	49.8	50.0
	실업률 <sup>1)</sup> (%)	6.6	6.4	6.2	6.3	6.4	6.3	6.3	6.3	..
	수출 <sup>1,3)</sup> (전기비, %)	-0.9	0.7	0.1	7.5	-5.8	-0.2	-0.8	4.7	..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5.4	2.4	2.2	2.3	2.0	2.1	2.0	2.2	2.1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9	2.8	2.7	2.6	2.4	2.3	2.3	2.4	2.4
	GDP성장률 <sup>1)</sup> (전기비연율, %)	1.2	-0.2	2.9	0.9	2.3	-1.8	-	-	-
	소매판매 <sup>1)</sup> (전기비, %)	5.7	2.3	0.2	1.5	-0.1	-1.8	-0.9	0.3	..
	산업생산 <sup>1)</sup> (전기비, %)	-1.4	-3.0	0.4	-0.3	0.4	0.1	-1.5	2.6	..
	제조업PMI <sup>2)</sup> (기준=50)	49.0	49.1	49.3	48.7	49.4	49.1	49.7	48.6	48.2
	수출 <sup>1)</sup> (전기비, %)	2.9	5.9	-0.2	3.6	-2.9	0.1	0.1	1.6	0.2
중국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3.2	2.7	2.9	3.8	3.4	2.9	2.7	2.9	3.0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5	1.9	1.6	1.5	1.6	1.5	1.6	1.3	1.6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5.4	5.0	5.4	5.4	5.2	4.8	-	-	-
	소매판매(전년동기비, %)	7.2	3.5	3.8	4.6	5.4	3.4	3.4	3.0	2.9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4.6	5.8	5.6	6.5	6.2	5.8	5.2	6.5	4.9
	제조업PMI <sup>2)</sup> (기준=50)	49.7	49.7	50.2	49.9	49.4	49.5	49.4	49.8	49.0
	수출(전년동기비, %)	-4.7	5.8	9.9	5.6	6.1	6.5	4.3	8.3	-1.1
글로벌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0.2	0.2	0.2	-0.1	0.0	-0.2	-0.4	-0.3	0.2
	생산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3.0	-2.2	-2.6	-2.3	-3.2	-2.9	-2.9	-2.3	-2.1
글로벌		교역량증가율 <sup>4)</sup> (전년동기비, %)	-1.1	2.6	3.2	6.4	4.7	..	3.8	..

주: 1) 계절조정 기준  
3) 역내거래 제외

2)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4) 상품수입량 기준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변화, 주요국 재정상황 등에 영향받아 장기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였다가 일부 되돌려졌다.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AI 부문 고평가 우려 등으로 조정되었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변화, 글로벌 통상환경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제금융지표

		2024	25.7월	8월	9월	10.22일	10월	11.26일
국채금리 <sup>1)</sup> (%)	미국(2년물)	4.24	3.96	3.62	3.61	3.44	3.57	3.48
	미국(10년물)	4.57	4.37	4.23	4.15	3.95	4.08	3.99
	독일(10년물)	2.37	2.70	2.72	2.71	2.56	2.63	2.67
	영국(10년물)	4.57	4.57	4.72	4.70	4.42	4.41	4.42
환율 <sup>1)</sup>	달러인덱스	108.5	100.0	97.8	97.8	98.9	99.8	99.6
	신흥시장국 <sup>2)</sup>	42.8	45.3	45.8	46.0	45.9	45.9	46.3
	엔/달러	157.2	150.8	147.1	147.9	152.0	154.0	156.5
	위안/달러	7.30	7.20	7.12	7.13	7.13	7.11	7.07
주가 <sup>1)(3)</sup>	전세계	841.3	929.6	951.6	984.8	990.8	1,006.2	1,000.2
	선진국	3,707.8	4,076.0	4,177.7	4,306.7	4,322.9	4,390.4	4,372.5
	신흥시장국	1,075.5	1,243.2	1,258.4	1,346.1	1,380.1	1,401.6	1,371.5
VIX <sup>1)</sup>		17.4	16.7	15.4	16.3	18.6	17.4	17.2
CDS프리미엄 <sup>1)</sup> (bp)	신흥시장국	172.5	154.1	145.0	147.6	150.8	135.6	135.9
	중국	66.0	41.2	44.0	38.2	44.5	40.2	47.3
	한국	37.8	21.7	19.9	24.5	24.5	22.2	22.7
유가 <sup>1)</sup> (달러/배럴)	WTI <sup>4)</sup>	71.7	69.3	64.0	62.4	58.5	61.0	58.7
	Brent <sup>5)</sup>	74.1	72.7	67.6	67.9	62.1	65.2	63.4
	Dubai <sup>5)</sup>	75.1	72.3	68.4	65.7	62.4	64.3	62.0
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기간증, 억달러)		-67.9	157.2	74.6	362.3	132.7 <sup>6)</sup>	160.9	298.2 <sup>7)</sup>

주: 1) 기말 기준  
4) 선물 기준

2)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5) 현물 기준

3) MSCI 기준  
6) 25.10.2~25.10.22일 기준  
7) 25.10.30~25.11.19일 기준

## [ 실물경기 ]

□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은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겠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 각각 지난 8월 전망치(각각 0.9%, 1.6%)를 상회하는 1.0% 및 1.8%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물경제지표

	2023	2024	24.4/4	25.1/4	2/4	3/4	25.8월	9월	10월 <sup>6)</sup>
GDP 성장률 <sup>1)</sup>	1.6	2.0	0.1	-0.2	0.7	1.2	-	-	-
(민간소비)	2.0	1.1	0.2	-0.1	0.5	1.3	-	-	-
(설클투자)	-0.2	1.7	0.8	-0.4	-2.1	2.4	-	-	-
(건설투자)	-0.5	-3.3	-4.1	-3.1	-1.2	-0.1	-	-	-
소매판매액지수 <sup>2)</sup>	-1.3	-2.1	-0.4	0.4	-0.9	1.5	-2.4	-0.1	..
설클투자지수 <sup>2)</sup>	-4.8	2.9	-1.8	-1.7	0.0	5.8	-1.3	12.7	..
건설기성액 <sup>2)</sup>	7.8	-4.7	-5.1	-6.4	-3.2	2.4	-5.3	11.4	..
수출(통관) <sup>3)</sup>	-7.5	8.1	4.2	-2.3	2.1	6.5	1.1	12.6	3.5
- 일평균 <sup>3)</sup>	(-6.8)	(8.1)	(2.7)	(2.3)	(2.1)	(2.0)	(5.6)	(-6.2)	(13.8)
제조업생산지수 <sup>2)</sup>	-2.6	4.2	2.1	0.1	-0.2	1.3	2.3	-1.1	..
서비스업생산지수 <sup>2)</sup>	3.4	1.1	0.7	0.3	0.7	0.8	-0.8	1.8	..
소비자심리지수 <sup>4)</sup>	97.4	100.0	96.9	93.3	101.4	110.8	111.4	110.1	109.8 [112.4]
기업심리지수 <sup>4)5)</sup>	90.5	92.8	90.3	90.3	94.1	92.9	93.3	93.4	92.4 [92.7]
취업자수 증감 <sup>3)4)</sup>	32.7	15.9	5.2	15.5	20.7	21.6	16.6	31.2	19.3
고용률(계절조정계열)	62.6	62.7	62.5	63.0	62.9	62.9	62.8	63.1	62.8
실업률(계절조정계열)	2.7	2.8	3.0	2.8	2.7	2.5	2.6	2.5	2.6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6) [ ]내는 25.11월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실적 CBSI 기준

## [ 물 가 ]

□ 국내 물가는 여행 관련 서비스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환율 상승에 따른 석유류가격 오름세 확대 등으로 10월 중 소비자물가 및 균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이 2.4% 및 2.2%로 높아졌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11월 중 전월과 같은 수준(2.6%)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지겠으나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 경로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소비자물가는 8월 전망치(2.0%)를 상회하는 2.1%, 균원물가는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1.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소비자물가 및 균원물가 상승률이 지난 전망치(각각 1.9%)를 상회하는 2.1% 및 2.0%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물가지표

	2023	2024	24.4/4	25.1/4	2/4	3/4	25.8월	9월	(전년동기비, %) 10월 <sup>3)</sup>
소비자물가 <sup>1)</sup>	3.6	2.3	1.6	2.1	2.1	2.0	1.7	2.1	2.4
	-	-	(0.2)	(1.2)	(0.2)	(0.3)	(-0.1)	(0.5)	(0.3)
▪ 농축수산물	3.1	5.9	1.6	1.2	1.1	2.9	4.8	1.9	3.1
▪ 공업제품	2.6	1.5	0.6	2.0	1.6	1.8	1.7	2.2	2.3
(석유류)	-11.1	-1.1	-5.2	5.4	-1.3	0.0	-1.2	2.3	4.8
(석유류 제외)	4.8	1.9	1.4	1.5	1.9	2.1	2.1	2.2	2.0
▪ 전기·수도·가스	20.2	3.5	3.0	3.1	3.1	1.1	0.3	0.3	0.4
▪ 서비스	3.3	2.2	2.1	2.2	2.4	1.9	1.3	2.2	2.5
(공공서비스)	1.3	1.7	0.9	1.0	1.3	-0.3	-3.6	1.2	1.2
(개인서비스)	4.8	3.0	2.9	3.1	3.3	3.0	3.1	2.9	3.4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3.4	2.2	1.8	1.9	2.0	1.7	1.3	2.0	2.2
▪ 농산물·석유류 제외	4.0	2.1	1.8	2.0	2.4	2.2	1.9	2.4	2.5
기대인플레이션율 <sup>2)</sup>	3.5	3.0	2.8	2.7	2.6	2.5	2.6	2.5	2.6 [2.6]

주: 1) ( )내는 전기비

2)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 [ ]내는 25.11월

## [ 금융안정 ]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및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고, 국고채금리는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상승하였다. 주가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조정되었다.

국내금융지표

	2024	25.7월	8월	9월	10.22일	10월	11.26일
국고채금리 <sup>1)2)</sup> (3년물, %)	2.60	2.46	2.43	2.58	2.57	2.72	2.90
국고채금리 <sup>1)2)</sup> (10년물, %)	2.86	2.79	2.82	2.95	2.87	3.06	3.25
통안증권금리 <sup>1)2)</sup> (91일물, %)	2.96	2.36	2.36	2.37	2.34	2.37	2.42
CP금리 <sup>1)2)</sup> (91일물, %)	3.58	2.73	2.73	2.73	2.73	2.76	2.99
회사채금리 <sup>1)3)</sup> (3년, AA-, %)	3.28	2.95	2.91	3.02	3.00	3.12	3.33
(3년, BBB-, %)	9.05	8.78	8.75	8.87	8.85	8.98	9.18
KOSPI <sup>1)</sup>	2,399.5	3,245.4	3,186.0	3,424.6	3,883.7	4,107.5	3,960.9
원/달러 환율 <sup>1)</sup>	1,472.5	1,387.0	1,390.1	1,402.9	1,429.8	1,424.4	1,465.6
원/100엔 환율 <sup>1)</sup>	948.8	932.4	945.5	946.6	941.9	924.4	939.0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2.3	6.3	-1.5	7.0	4.9 <sup>4)</sup>	4.9	-14.6 <sup>5)</sup>

주: 1) 기말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3) 민간신용평가기관 평균 기준  
4) 25.10.1~25.10.22일 기준      5) 25.11.1~25.11.26일 기준

- 가계대출은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상승폭과 거래량이 둔화되었으나 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지표

	2023	2024	24.4/4	25.1/4	2/4	3/4	25.8월	9월	10월
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77.4	67.4	-1.1	9.2	18.7	17.1	8.4	5.3	5.9
▪ 대기업	31.9	26.7	-1.2	5.7	8.4	5.7	3.8	1.3	0.2
▪ 중소기업	45.5	40.6	0.1	3.5	10.3	11.4	4.5	4.0	5.7
은행 가계대출 증감 <sup>1)</sup> (조원)	36.9	46.0	5.3	4.4	16.1	8.8	4.1	1.9	3.5
▪ 주택담보대출 <sup>1)</sup>	51.6	52.1	5.8	7.6	12.9	9.6	3.8	2.5	2.1
▪ 기타대출 <sup>2)</sup>	-14.5	-5.9	-0.4	-3.2	3.2	-0.8	0.3	-0.5	1.4
주택 매매가격 <sup>3)</sup> (%)	-3.6	0.1	0.0	-0.1	0.1	0.3	0.1	0.1	0.3
▪ 수 도 권 <sup>3)4)</sup>	-3.6	1.4	0.3	0.1	0.5	0.7	0.2	0.2	0.6
(서 울) <sup>3)</sup>	-2.0	3.2	0.6	0.7	1.6	1.8	0.5	0.6	1.2
▪ 지 방 <sup>3)5)</sup>	-3.5	-1.0	-0.3	-0.4	-0.3	-0.2	-0.1	0.0	0.0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3) 전기비, 연·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  
4) 서울, 인천, 경기      5) 수도권 제외

## [ 향후 정책 방향 ]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을 전망이 상향조정되었지만 향후 경로에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잠재해 있고 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다소 높아진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